삼정 KPMG

Global Thought Leadership

June 2019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Thought Leadership 발간물을 한글로 요약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영어 원문은 해당 발간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1. [은행] The future is open: Reshaping the banking experience
2. [레저/관광] Global Leisure Perspectives
3. [테크놀로지] The top 10 technologies for business transformation
4. [테크놀로지] Quantum computing 101
5. [헬스케어] Creating a culture of excellence
6. [정보통신] How incoming cellular technologies will transform smart manufacturing
7. [자동차] Digital gravity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김규림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박도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04
dohwipark@kr.kpmg.com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은행] The future is open: Reshaping the banking experience

KPMG

The future is open:

Reshaping the banking experience

Open

Does banking's future outweigh its past?

On the surface, at least, it's a conundrum. How do banks face profound industry changes driven by rapidly evolving customer expectations, emerging technology and new digital challengers when millions of dollars are invested in inflexible, though robust, legacy systems that served them in the past but are not fit for future needs? Given the dominant market share of incumbent banks and the relatively small inroads made by digital challengers, how quickly do traditional banks need do move? Should changes be piecemeal, transformational or totally greenfield?

To companies in the banking industry, the story is a familiar one. Customers with connectivity at their fingertips are demanding cheaper, faster, and better banking experiences. A plethora of challenger banks and new market entrants are emerging to meet these demands — armed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encumbered by the legacy infrastructure that restricts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Yet, traditional banks still have the lion's share of the business, enviably strong brands, large customer bases and high visibility.

In the face of this many banks are investing heavily to drive innovation, enhance agility, and become more customer centric. For the majority, these investments comprise patchwork upgrades to legacy systems and incremental change. Organizations are reluctant, indeed, to walk completely from these systems owing to substantial investments in them, concerns for reliability, and the simple fact that these systems have been so central to past successe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re taking different paths to reposition themselves.

One thing is clear. Traditional banks cannot afford to apply patchwork upgrades to their legacy systems. Nor can they assume that system upgrades, even bold and ambitious ones, will translate to a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e long term. While the pace of technology change in financial services has been more gradual than in other industries, in part due to regulatory restrictions on new market entrants in many jurisdictions, the ability of companies to rapidly adapt will only become more critical over time.

The degree of industry change is such that banks need to think more radically about what they want to become and how they want to get there if they expect to thrive.

What will the banking industry look like in 2030? Business models, just like the industry as a whole, will be transformed by technology. New models will emerge in the years ahead putting a halt to the band-aid approach to legacy systems. Banks will look to new architecture that is digital to the core, and, more will choose to build and migrate to new systems.

Under pressure: digital banks making inroads

Challenger banks — such as Starling Bank, Atom Bank and Tandem — have existed in the UK for a number of years. Fidor and N26 were the first of the European digital banks. The model is now emerging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deed, there are approximately 100 challenger banks worldwide, including:

— SolarisBank and N26 in Germany

— MyBank, WeBank and Kakao in Asia

— Nubank in Brazil

— Chime in the US

— 86400, Volt and Xinja in Australia.

In March, 2019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nnounced that banking licences had been granted to no less than three digital banks in the territory. These entities are expected to go live later this year[1]

[1] https://www.hkma.gov.hk/eng/key-information/press-releases/2019/20190307-3.shtml

1 | **The future is open:** Reshaping the banking experience

손 끝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고객은 편리하고, 빠르며, 보다 나은 은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디지털 뱅크 등은 기존 은행 대비 작은 규모임에도 적응 속도와 고객 중심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능력을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디지털 뱅크 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금융기관들은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API 구축, 디지털 뱅크 인수 및 자체 설립, 기술 역량 강화와 대처 능력 향상 중심의 혁신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전부가 아니며, 기술 혁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회사의 혁신 방향에 동의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고하는 한편 일원화된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변화를 인식하고 조직의 혁신을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기업은 미래 가치창출의 방식, 목표와 현재 모습 간 격차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요소,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편익 등 핵심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나아갈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혁신을 위해 행동하는 은행, 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금융 산업 내 경쟁력을 가지며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조민주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589
minjoocho@kr.kpmg.com

최연경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769
yeonkyungchoi@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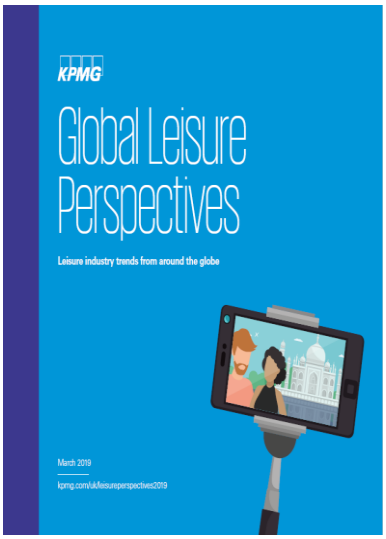
Keywords ▶ #미래은행 # 디지털뱅킹

삼정 KPMG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레저/관광] Global Leisure Perspectives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KPMG는 Global Leisure Perspectives 보고서를 통해 관광, 호텔, 레스토랑, 스포츠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 중 특히 관광 산업의 신기술 및 호텔 산업의 M&A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다수의 글로벌 소비자는 호텔, 항공권 등 관광 상품을 예약할 때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이용 중입니다. 과거 소비자와 관광 상품을 연결해 주며 미들맨(Middleman) 역할을 하던 오프라인 관광 기업의 영역을, OTA가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OTA는 기존 관광 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테크 자이언트(Tech Giant)입니다. 이에 따라, OTA가 산업을 혁신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동시에 OTA가 기존 전통 관광 업계의 위협적 대상이 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테크 자이언트의 디지털 서비스 수익 창출 지역과 과세 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부분에 EU(유럽연합) 등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다국적 ICT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상 기업에 OTA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업계는 글로벌 과세 제도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한편 글로벌 호텔 산업에서는 최근 M&A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M&A를 통해 호텔 상품의 물량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규모에 따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또한 M&A를 기반으로 여러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게 된 기업은 고가의 럭셔리 호텔부터 중저가의 호텔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지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호텔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호텔업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M&A 동향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김수경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3973
sookyungkim@kr.kpmg.com

Keywords ▶ #레저 #관광 #호텔 #OTA #M&A

삼정 KPMG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테크놀로지] The top 10 technologies for business transformation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KPMG는 Technology Industry Innovation Survey 2019에서 향후 3년간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10개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개국 740명의 테크놀로지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선정된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2위-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3위- 인공지능(AI),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머신러닝
4위(공동)- 블록체인(Blockchain)
4위(공동)- 로보틱스(Robotics)·자동화(Automation)
6위-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7위-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8위- 소셜 네트워킹, 협력기술(Collaborative Technology)
9위- 바이오 테크놀로지(Biotech), 디지털 헬스, 유전학(Gentics)
10위- 온디맨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사물인터넷은 작년 설문조사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 경영진과 벤처캐피털(VC) 투자자는 커넥티드 홈·시티를 실현시키는 사물인터넷 기술에 적잖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순위에서 변동사항이 큰 기술로는 9위에서 2위로 도약한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보조하며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봇(Bot)은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고 있으며, 업무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7위를 기록한 블록체인은 올해 세 계단 상승해 로보틱스·자동화와 공동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향후 블록체인이 금융과 제조, 통신업에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수의 응답자는 신기술 도입의 목적으로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을 들었고, 수익성 강화 및 비용절감도 중시했습니다. 기업의 신기술 도입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해 성공한 선례가 아직 적다는 점, 기술이 복잡하다는 점, 보안상 이슈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전창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34
changuichun@kr.kpmg.com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430
kkim28@kr.kpmg.com

Keywords ▶ #유망기술 #사물인터넷(IoT) #RPA #블록체인

삼정 KPMG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테크놀로지] Quantum computing 101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KPMG는 '양자(Quantum) 컴퓨터'의 정의, 잠재적인 활용 가능 사례와 함께 기업이 양자 컴퓨터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를 이용해 무한대에 가까운 동시 연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 작동하며, 현재 컴퓨터로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복잡한 문제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중앙 센터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비자나 기업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화, 모델링,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에 강점을 지니며, 이메일, 문서 작업 등 일반적인 사무 용도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존의 PC, 노트북 등의 컴퓨터 시스템과 병행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항공, 교통, 금융, 제약/화학, 에너지/자원, 미디어, 정책/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최적화, 항공 기류 분석, 날씨/기후 예측과 같이 주로 기존에는 슈퍼컴퓨터가 담당해왔던 고도의 컴퓨터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대학, 130여 개 기업이 양자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전문가 수는 수백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 양자 컴퓨터 기술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와 문제를 진단하고, 기업 내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이 관련 기술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를 기존의 IT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기술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 체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킹 방어, 데이터 보안 등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전창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34
changuichun@kr.kpmg.com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430
kkim28@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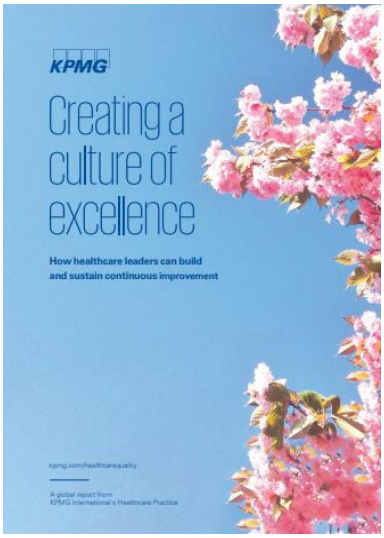
Keywords ▶ #양자컴퓨터 #퀀텀컴퓨팅

삼정 KPMG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헬스케어] Creating a culture of excellence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조직 목표의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 등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해소되고, 조직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기관은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하여 의료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환자와 직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단순 프로세스 개선이 아닌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이는 성장하는 조직을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변화를 위해 조직 임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십시오.
리더십은 조직원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냅니다.

(3) 장기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십시오.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면 변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직원들과 환자·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십시오.

(5) 코칭과 교육을 통해 성장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십시오.

(6) 주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하여 직원의 참여를 장려하십시오.

더불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통해 사내 성장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7) 진정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원칙을 설정하십시오.
중요한 원칙을 직원들과 명확히 소통하고 점검하십시오.

(8) 모든 직급에 걸쳐 품질 개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십시오.

(9) 전사의 전략적 방향에 맞는 실무적인 변화를 유도하십시오.

(10) 조직 문화 개선에 환자들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실질적인 개선의 아이디어는 주로 환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의 문화를 확립하십시오.
디지털 전략은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합니다.

(12) 장기적인 시각으로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04
dohwipark@kr.kpmg.com

강민영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6617
minyoungkang@kr.kpmg.com

이명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4802
myounggulee@kr.kpmg.com

Keywords ▶ #헬스케어 #의료서비스강화원칙 #성장문화

삼정 KPMG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정보통신] How incoming cellular technologies will transform smart manufacturing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본 보고서는 'Enterprise IoT Insights'에 기재된 기고문으로서 LTE, 5G와 같은 셀룰러(cellular) 기술의 발전이 스마트팩토리에 미치는 영향 및 도입 사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공장은 바닥, 벽, 천장을 제외하고 모두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계, 장치 및 차량을 포함한 모든 산업자산은 5G 네트워크에 의해 애니메이션화(animated)되고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및 클라우드(cloud) 분석으로 지능화 됩니다.

5G를 통한 스마트팩토리는 무선 기반 제조장비로 작업현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고,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에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고속 셀룰러 네트워크(Rapid-transit cellular networks)와 강력한 엣지 컴퓨팅 기능은 공장의 성능 향상을 위해 스마트하게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독일의 부품회사인 보쉬(Bosch)는 5G 기술을 재구성이 가능한 생산 시스템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실시간 분석에 따라 시스템의 분리 및 축소가 가능하며, 그 자체가 엣지 컴퓨팅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결합하여 LTE 및 5G 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외에도 독일의 완성차 업체인 아우디(Audi), 핀란드의 통신기술 업체인 노키아(Nokia)와 같은 글로벌 선두기업들은 신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운영의 무선화, 무인화,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셀룰러 기술의 발전은 고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근로자 1인당 생산성 역시 급격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공장 운영의 전환은 제조업의 선진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장진영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095
jinyoungchang@kr.kpmg.com

엄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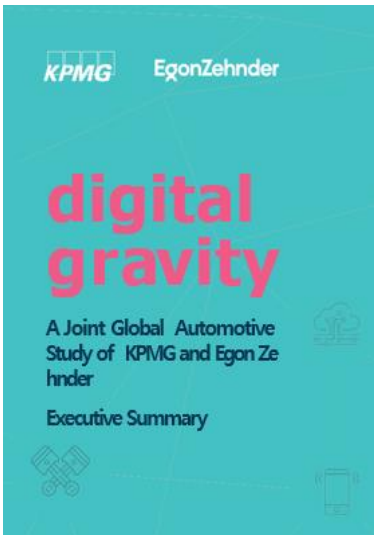
Keywords ▶ #스마트팩토리 #셀룰러기술 #LTE #5G #엣지컴퓨팅

삼정 KPMG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자동차] Digital Gravity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본 보고서는 KPMG와 에곤 젠더(Egon Zehnder)가 전 세계 자동차 기업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중력(Digital Gravity)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중력'이란 해당 조사에서 사용된 용어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내 90% 이상의 임원들은 오늘날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대하여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는 예전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양립할 것이며, 자동차 업계 리더들은 전통적인 프로세스와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해서 기술 기반의 사업을 지향해야 하며, 외부의 기술 기업은 물론 경쟁사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화는 하향식(Top-Down)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친 사고방식의 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자동차 산업이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선두기업(First Mover)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대담한 실행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업계 경영진의 40%만이 스스로를 선두기업으로 평가하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조기 추종자(Early Follower)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의 선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다양성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더욱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기업들을 위해 디지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IT부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조직의 전반적인 문화와 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문화를 단시간에 변경하기보다는 예전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지능적으로 혼합하며 서서히 상호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장진영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095
jinyoungchang@kr.kpmg.com

엄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Keywords ▶ #디지털화 #디지털 중력 #Digital Gravity #Digitalization

삼정 KPMG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삼정 KPMG

kr.kpmg.com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